

휘발유, 중간 유통서 1000원 올라

세금과 주유소 유통마진 때문 ... 공급-판매가격 차이 계속 확대

정유기업이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공급가격과 주유소가 판매하는 소비자가격의 격차가 리터당 무려 1000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유기업이 리터당 500원에 공급하는 휘발유가 중간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소비자에게는 1500원에 팔리고 있는 것이다.

4월15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정유4사의 주유소 평균 공급가격은 3월 548.78원으로 잠정 집계됐지만 국 주유소의 평균 소비자가격은 1530.45원으로 981.67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도송이 마냥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각종 명목의 세금과 대리점 및 주유소의 유통마진 탓이라는 것이 정유 업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3월 정유기업의 휘발유 공급가격은 548.78원에 출발했지만 유통단계를 거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교통세가 514원, 교육세가 77.1원, 주행세가 154.20원, 부가가치세가 129.41원이 각각 매겨지면서 세금만 무려 874.71원이 추가됐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리점과 주유소로 넘어가면서 정유기업 세후 공급가격에는 대리점과 주유소의 유통마진 97.24원과 부가가치세 9.72원이 별도로 첨가되면서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는 1530.45원에 제공됐다.

정유기업의 공급가격과 주유소 소비자가격의 차이는 1월 909.07원에서 2월 949.34원, 3월 981.67원 등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4/15>